

# ‘달피마을’ 빈집·담벼락 전시 공간 되다

# 시류 편승 않고 의로운 길 걸은 전라도 충신 이야기

월산마을 도시재생사업 일환

26일까지 ‘월산부르스; 전복된 도시’ 전  
김자이·양나희 작가 등 6명 작품 발표  
일상 소중함·공동체 의미 되새겨

광주 월산동 ‘달피마을’의 빈집과 담벼락 등이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다.  
월산동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독립큐레이터 그룹 OverLab.(이하 오버랩)이 기획한 ‘월산부르스; 전복된 도시’전이 오는 26일까지 월산동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광주남구가 주관한 2019 광주 남구 달피마을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전시다.



월산동 빈집에 전시된 설박 작 ‘월산동-기억의 층위’

김자이 작가 등 6명의 지역 예술가와 오버랩은 시공간의 가변성과 이동성, 자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도시 안에서 인간 삶에 밀착한 도시의 ‘장소’에 담긴 사회·정치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작가들은 여전히 마을 공동체를 일구는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과 ‘함께’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과정에 주목했고 리서치를 통한 오브제 수집, 소통의 과정을 표출한 실험적 설치작품을 전시 중이다.

‘휴식’을 주제로 다양한 작업을 해온 김자이 작가의 ‘타; 집이나 건물을 지었거나 지을 자리’(남구 수원지길 6-4)는 빈집과 함께 토란 호박, 파 등을 삼은 주민들의 ‘화분’에 주목한 작품이며 김현돈 작가의 ‘Reason-recursiveness’(남구 구성로 20)은 마을을 떠난 이들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장난감 등을 오브제로 활용해 시간과 기억에 대한 이

미지를 담은 설치 작업이다.

설박 작가의 ‘월산동-기억의 층위’(구성로 20번 가길 9)는 10여년간 월산동에서 작업했던 작가가 마을의 파스함이 존재했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래된 빈집의 구석진 방에 풀어놓은 설치물이며 재활용 골판지로 월산동의 사계절 풍경을 담아 온 양나희 작가의 ‘해체된 풍경’(구성로 20번가길 9)은 버려진 종이상자를 해체한 후 만들어낸 월산동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그밖에 유지원 작가는 마을의 골칫거리인 폐가를 전시 장소로 택해 월산동 공사현장에서 촬영한 퍼포먼스 작품을 공간에 배치한 ‘Trace Collector’(구성로 26번 안길 4-5)를 선보이고 있으며

사진작가 이세현은 ‘episode#월산’ 작품을 통해 영어에 담은 도시의 이미지를 재배치하고 시간을 덧입혀 마을 곳곳 담벼락에 월산동의 시간을 기록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선영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가 존재하다 소멸된 공간들의 자해 속에서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평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주민이 직접 도슨트 역할을 맡아 안내한다. 사전신청 및 문의 070-4496-551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장성 출신 김정수 씨  
‘전라도 사람들’ 펴내

인덕의 정치가 펼쳐지는 세상을 위해 헌신한 전라도 진짜 충신들 이야기를 묶은 책이 발간됐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걸은 이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잔잔한 감동을 준다.

장성 출신 김정수 전 금호고 교장이 펴낸 ‘전라도 사람들’(7권·하서)이 그것. 김 교장은 이전에 ‘전라도 사람들’(1~6권)에서 고려시대 인물 조선 국사와 최후, 조선시대 인물 최부, 최산두, 양평손, 김인후 등을 조명한 바 있다.

이번 7권에서 저자는 절의를 지키다가 수난을 당하거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던 이들의 처절한 삶을 살펴본다. 이들의 삶과 문장에는 나약한 지식인이나 관료가 아닌 바른 길을 걷고자 했던 의인의 절기와 사상이 녹아 있다.

송재 나세찬은 세종조의 대표적 권신 김안로를



논찬한 책문(策文)으로 고성에 유배됐다. 금호 임형수는 을사사화에 파직돼 2년 후 일어난 을사사화에 사사를 당했으며 미암 유희춘 역시 정미사화에 극지인 함경도 정성에 유배돼 19년을 지냈다.

유한 정황 또한 을사사화에 파직됐다가 정미사화에 거제도 유배돼 돌아오지 못하고 최후를 마쳤다.

저자는 “관직에 임하는 이들의 자세와 충군·애국·위민의 사심 없는 고귀한 정신, 의(義)에 목숨을 거는 강한 정의감 등은 오늘의 혼탁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밝은 거울, 서늘한 지침이 되어준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중·고교 교사를 거쳐 금호고 교장을 마지막으로 47년간 교직생활을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라포르 색소폰 앙상블’ 정기 연주회

내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라포르 색소폰 앙상블’이 3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올해로 창립 14년째를 맞은 ‘라포르 색소폰 앙상블’은 매년 말 1년 간 닦은 실력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무대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가수이자 리포터로 활동하는 오원하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하와이5-0’, ‘그 겨울의 찻집(조용필)’, 영화 ‘스팅’ 삽입곡, ‘바람(노사연)’, ‘엘 콘도르 파사’, ‘목포의 눈물(이만영)’, ‘파이널 카운트다운’, ‘캐롤 메들리’ 등 다양한 곡이 연주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공연을 풍성하게 꾸민다.

대금 연주자 오복대씨가 ‘기다리는 마음’과 ‘천

년바위’를 연주하며, 정찬경 광주대 교수가 특별 출연해 ‘동심초’와 ‘그대에게 내 말 전해주소’를 들려준다.

이날 공연에는 류상호·박지영·조성혁·이승주·임미자·조기정·김영근·최수환·남시호·유승우·김장민·손철홍·송삼홍·조상호·조철봉·김경규·고명성·주유진·진태경 단원이 색소폰의 깊은 선율을 들려준다. 또 유승우 단원은 솔로곡으로 ‘스웨이’를 연주한다.

박지영 라포르 색소폰 앙상블 단장은 “음악적으로 늘 새로운 모습,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관객들 앞에 서고자 열심히 노력했다”며 “만나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색소폰 음악을 들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라포르 색소폰 앙상블은 매년 자선 봉사 연주와 정기연주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객석 친화적 공연으로 시민 삶 업그레이드’

광주시립합창단 김인재 지휘자  
5·18 40주년 기념 공연 준비



“광주시립합창단원들의 음악적 에너지, 긍정적인 마인드와 지휘자의 능력이 융합될 때 나타날 큰 울림을 통해 객석친화적인 합창단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지난 7월 부임 후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는 광주시립합창단 김인재(60·사진) 지휘자는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 후 13년 전 광주합창단 객원연주를 했었다”며 “13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어제 만났던 사람들처럼 반가운 모습으로 지휘자를 받아 주는 모습에 어떠한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상임지휘자는 그동안의 활동을 이야기하며 합창음악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다.

“합창음악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한가지 본질은 ‘현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감은 음정, 리듬, 악상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 위에 적절하고도 정확한 발음의 가사가 더해질 때 완성돼요. 이러한

현장감을 비롯해 소리의 자발성, 노래가사가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감성 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지휘자의 일이지. 객석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전문성 있는 부분과, 연주자들이 객석으로 내려가고 다가서는 객석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분배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삶의 희로애락을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연말 공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오는 5일(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182회 정기연주회 ‘WHAT?’를 선보인다. 이날 연주는 12월의 상징인 크리스마스의 신비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해 크리스마스로 인한 즐거움, 따뜻한, 감사함 등을 합창으로 표현

하는 음악회로 조용조용, 재잘재잘, 웅성웅성, 와글와글, 씩덕씩덕 5개의 스테이지로 꾸며진다. 이어 부산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 대구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협연한다. 김 상임지휘자는 내년 3월에 취임연주 성격의 정기연주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공연도 준비 중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공연은 세계의 시리드로 나뉘니다. 먼저 3월에 영국 작곡가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미사’를 선보일 예정이예요. 두번째 시리즈로 뮤지컬 ‘레 미제라블’과 국악작곡가 김창환의 ‘추억’을 준비했고요. 마지막 시리즈는 10월에 예정돼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김 상임지휘자는 인천 출신으로 단국대 음악학과(작곡 전공)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웨스트민스터 코이아 칼리지에서 합창지휘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했으며 제주시립, 전주시립,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에서 상임지휘자로 활동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무용가 한명선씨 ‘올해 최우수 예술가’ 특별 예술가상

한국 무용가 한명선(나빌레라 국악예술단장·사진)씨가 제39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선정 특별 예술가상(무용 부문)을 받았다.

광주시립합창단 차석 단원으로 활동중인 한씨는 조선대 무용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광주국악협회, 한국무용협회 이사도 맡고 있다.

한씨는 제 15회 장흥기무악 대통령상, 2017 임방울국악상 문화예술 특별상, 2019 평화통일 전국 무용경연대회 공로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시립무용공쿠르, 조선대 무용공쿠르 등에서 안무상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4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한국예술평론가협회(회장 장석용)가 수여하는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는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자유 예술 창작 정신을 존중하고 독특한 예술로 예술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예술가들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로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단청장 이수자 송인정 등 12명이 뽑혔으며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 주목할 예술가, 청년예술가 등도 선정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   |  |   |  |  |  |
|---|--|---|--|--|--|
| <b>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b><br>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br>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br>각종부동산 매매 상담<br><b>☎ 061-337-8244, 010-3626-9040</b> | <b>현대 목공예사</b><br>북구 신안동 239-2(전대정문사거리)<br>목공예, 서각현판, 각종 원목침대, 서예부품<br><b>☎062)523-0408, 010-2631-0408</b> | <b>골프가방수선전문점</b><br>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동 동양빌딩앞<br>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br><b>☎ 010-2087-3592</b>                                       | <b>양지공인중개사</b><br>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br>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br>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br>대표 정민각 ☎ 062)263-2223 | <b>기담철학원</b><br>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br>(우산그린공원 옆)<br>사주(음관·양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br>개인·단체 환영<br><b>☎062)432-1324</b>                | <b>광주갤러리경매장</b><br>동구 대인동 동부사방서후문앞 철종문빌 1층<br>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br>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br><b>☎ 010-6778-9330</b>      |
| <b>OK 당구장</b><br>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br>(가오무대 지하)<br>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br>병, 난방 완비 친절, 신용 본위<br><b>☎ 010-8005-0188</b>       | <b>완도전복</b><br>나주시 나주로 131(나주신협옆)<br>산지 직송 도소매<br>전국택배가능<br><b>☎010-2831-9257</b>                          | <b>태극익스프레스</b><br>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br>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br>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br>친절, 신용, 본위<br><b>☎062)222-2424, 011-664-2202</b>  | <b>고전방</b><br>동구 궁동 34-4<br>(중앙초등학교 후문)<br>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br>대표 김화중 ☎062)224-4869               | <b>청학철학원</b><br>북구우치로 39-1(중흥신협옆2층)<br>작명·사주·운세·궁합·택일<br>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br>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br><b>청학 서광호 ☎010-9866-2332</b> | <b>청강창호</b><br>북구 청계로 67(용봉동)<br>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br>제작설치전문<br><b>☎062)528-7711, 010-3612-9794</b>                    |
| <b>(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b><br>동구 호남동 13-3<br>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행연!!<br>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br><b>☎062)232-0038, 010-2290-0038</b> | <b>진주공방</b><br>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br>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br>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br>가족소품만들기<br><b>☎ 010-3906-1718</b> | <b>으뜸공인중개사</b><br>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br>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br>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br>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br><b>☎062)263-5383, 010-6338-5383</b> | <b>신신예술의집</b><br>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br>기념품 전문 판매점<br>대표 서태석 ☎062)222-1936                                  | <b>국수나무용봉점</b><br>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br>모든 메뉴 포장가능,<br>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br><b>☎062)526-5475, 010-8621-5959</b>       | <b>클로버부동산</b><br>북구 필문대로11번길 6(동향동)<br>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br>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br>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br><b>☎ 010-5707-6676</b> |